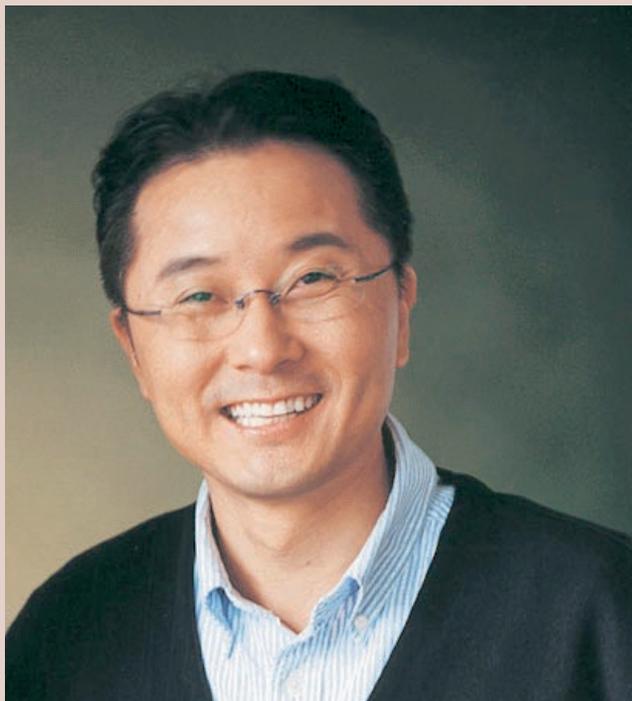


원하는 강의 언제나 ... 온라인 교육 육성, 망국적 과외 추방

글 / 황인태 서울디지털대학교 부총장



다사다난했던 2004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여러가지 떠들썩한 일 중에서 가장 큰 화두는 불경기가 아니었나 싶다. 올해 한국경제는 IMF사태 이후 가장 심한 불경기를 겪었다. 자영업자, 직장인뿐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들까지도 요즘 같은 불경기는 처음이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올해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또 있었을까.

한국경제는 이처럼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국민소득 2만달러는 절대 이뤄질 수 없는 꿈처럼 느

껴지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유럽의 어떤 나라는 최근 급격한 경제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 바로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도 않은 두 나라의 국민소득은 이미 3만달러를 넘어서 이제는 미국과 일본 같은 경제대국을 위협할 정도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률 17%에 그쳐

특별한 부존자원과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이 나라들이 갑자기 큰 경제적 성공을 이뤄낸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학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평생교육체제 구축의 성공에 있다고 한다. 이들 나라는 평생교육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다니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다시 재교육을 받고 있다는 말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국민소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평생교육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다.

우리나라는 재교육의 열망은 높지만 실제 재교육률은 낮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생교육 비율이 34%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7% 정도로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이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졸업후의 재교육보다는 오히려 대학입학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다. 매년 이맘때쯤 보도되는 대학입시 관련 각종 보도들을 보아도 그렇다.

그러나 대학입시의 병폐는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얼마 전에 일어났던 대학수학능력시

“온라인 교육은 전통적인 재래 교육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철저한 실무 위주의 교육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의 교육기관들이 가졌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힘에서의 대규모 부정행위, 고액과외를 비롯한 사교육열풍, 고교서열화 문제 등 각종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힘들게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도 또다시 취업난 속에서, 취업 후에는 구조조정의 불안 때문에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처해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현실을 벗어날 해결방안은 없는 것일까. 필자는 온라인 교육의 도입으로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이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보다 교과서 위주의 지식전달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대졸자들을 바로 활용할 수 없다는 비판을 자주 한다. 또 실무위주의 교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직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교육을 받을 수 있을만한 여건에 처해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온라인 무한교육’이 뜬다

그러나 위의 두가지는 온라인 교육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도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직장인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곳에서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 직장인에게 더 각광받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또 온라인 교육은 전통적인 재래 교육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철저한 실무위주의 교육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의 교육기관들이 가졌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학생을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교육상품의 선택권을 가진 고객으로 봐야하며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좋은 상품을 갖춰야 한다.

온라인 교육은 기존의 오프라인 대학과는 차별화되는 전혀 새로운 장르의 교육기관이다. 이러한 교육방식으로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답습한다는 것은 기술의 낭비다. 실무위주의 교육과정뿐 아니라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적은 비용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온라인 대학이 맡은 임무라고 할 수 있겠다.

내년이면 국내 온라인 대학이 출범 5년째에 접어든다. 2005년은 온라인 대학에게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니는 해다. 내년이 되면 각 온라인 대학에서 처음으로 졸업생들을 배출하게 되며, 또 재학생 규모가 1만명 이상인 학교가 생겨날 전망이다.

재학생수가 1만명이 넘는 오프라인 대학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설립한지 5년만에 온라인대학의 학생수가 1만명을 넘어선다는 것은 그 학교의 경쟁력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으로 온라인 대학의 규모는 무한대가 될 것이다. 온라인 대학이야말로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률을 높이고 선진국과 경쟁에도 뒤처지지 않는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 